<珍靑>64-88

-鄭澈時調2

六四 **일이나 일우려 ᄒᆞ면 처엄에 사괴실가** ★외다웃: 그르다고만
보면 반가실ᄉᆡ 나도 조차 ᄃᆞ니ᄃᆞ니 ★마ᄅᆞ신달: 그만두신들
眞實**로 외다웃 ᄒᆞ시면 마ᄅᆞ신들 아니랴.**

무슨 일이든지 이루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사귀었으랴.
보면 반기시기에 나도 따라다녔는데,
진실로 그르다고만 하시면 그만두심이 어떠하랴.

☞ 앞 시조 六三에 대한 답시로, 술의 입장에서 지은 글이다. 술을 즐긴 송강 자신을 두고 읊은 것인데, 오랫동안 술을 즐긴데 대해 회의를 느끼고 술을 끊을 결심을 하려는 심정을 표현한 시조라고 보인다.

六五 **내 말 고쳐드러 너 업스면 못살려니** ★고쳐드러: 다시 들어
머흔 일 구즌일 널로ᄒᆞ여 다 닛거든 ★구즌: 궂은
이제야 ᄂᆞᆷ 괴려ᄒᆞ여 녯밧 말고 엇지리.

내 말 다시 들어라, 너 없으면 못살 것 같구나
험한 일 궂은 일을 너로 인하여 다 잊어버릴 수 있거늘,
이제 와서 남을 사랑하려고 옛 친구를 버려서야 어찌하겠느냐.

☞ 이 노래도 역시 술에 대한 이야기로, 앞 두 시조에서 술을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였으나, 결국은 끊어 버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六六 一定百年 **산들 긔 아니** 草草**ᄒᆞᆫ가** ★一定: 한결같이
草草**ᄒᆞᆫ** 浮生**이 므스일 ᄒᆞ려ᄒᆞ여** ★草草: 수고롭고 고된 모양
내 자바 勸**ᄒᆞᄂᆞᆫ** 盞**을 덜 머그려 ᄒᆞᄂᆞ니.** ★浮生: 뜬구름과 같은 허무한 인생

한결같이 백년을 산들 그 어찌 고되지 않을까 .
이고되고 허무한 인생살이에 무슨 일을 하려하여,
내가 잡아 권하는 술잔을 덜 먹으려고 하는가.

☞ 친구에게 술을 권하는 노래이다. 이 시조에서도 술을 즐기는 송강의 심회가 잘 나타나 있다.

六七 **예서 ᄂᆞᆯ애를 드러 두세 번만 부츠며ᄂᆞᆫ** ★ᄂᆞᆯ애: 날개
逢萊山 第一峯**에 고온 님 보련마ᄂᆞᆫ** ★부츠며ᄂᆞᆫ: 부치다, 치다
ᄒᆞ다가 못ᄒᆞᄂᆞᆫ 일은 널러 므슴ᄒᆞ리.

여기서 날개를 들어 두세 번만 치면,
봉래산 제일봉의 고운 님 보련마는,
하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여 무엇하리오.

☞ 벼슬을 떠나 낙향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가서 임금님을 뵙지 못하는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六八 **이몸 허러내여 냇물에 띄오고져** ★허러내여: 헐어내여, 해체해서
이 물이 우러내여 漢江 **여흘되다 ᄒᆞ면** ★우러내여: 소리내며(울며) 흘러가서
그제야 님 그린 내 病**이 헐흘 법도 잇ᄂᆞ니.** ★여흘: 여울
★헐흘: 원형은 '헐ᄒᆞ다', 나을, 덜해질

이몸을 헐어내어서 냇물에 띄우고 싶구나.
이 물이 흘러 내려가서 한강의 여울이 된다면,
그때서야 임 그리는 내 병이 나을 법도 하겠구나.

☞ 자기의 몸을 헐어내어 냇물에 띄우고서라도 임금 계신 곳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마음의 병이 낫겠다는 뜻으로 간절한 연군의 정을 표현한 노래이다.

六九 **내ᄆᆞ음 버혀내여 뎌ᄃᆞᆯ을 ᄆᆡᆼ글고져** ★뎌ᄃᆞᆯ을: 저 달을
九萬里長天**에 번드시 결려이셔** ★九萬里長天: 아득히 먼 하늘
고온님 계신 고ᄃᆡ 가 비최여나 보리라. ★번드시: 번듯하게. 뚜렷하게

내 마음을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 싶구나.
구만리장천에 번듯이 떠 있으면서,
고은 임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 임 계신 곳에 직접 가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 하늘에 높이 뜬 달이 되어서라도 임 계신 데를 비추어 보겠다는 뜻으로, 역시 연군의 정을 읊은 시조이다.

七○ 興亡**이 數업스니** 帶方城**이** 秋草**로다**
나 모론 지난 일난 牧笛**에 부쳐부고**
이 죠흔 太平烟花**에 ᄒᆞᆫ 盞 ᄒᆞ되 엇더라.**

★帶方城: 대방은 지금의 남원 등지를 일컫는데, 당나라 고종때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유인궤로 하여금 대방주랄사를 맡겼다.
★秋草: 시든 가을풀. 황폐함을 은유하는 말.
★牧笛: 목동이부는 피리 소리. 한적하고 무심함을 비유한 말.
★부쳐: 사연을 담아 부른다는 뜻.
★태평연화: 태평한 시절. 세월이 태평하여 집집마다 굴뚝의 연기가 피어오름을 표현한 말.

흥망이 수없이 많으니 대방성이 추초를 덮었도다.
내가 모르는 지난 일일랑 목적으로나 불리게 내버려두고
이 좋은 태평 시절에 한 잔 하는 것이 어떠리.

☞ 송강이 34세에 호남어사를 지냈고 46세에는 전라도 관찰사를 지낸 일이 있는데 이때에 옛 대방의 일을 생각하고 흥망이 무상함을 느끼는 심회를 읊으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태평성대와 비교하고 있다. 이 시조는 초장과 중장은 고려말 유신인 원천석의 시조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는 객이 눈물겨워하더라'에서 본떠온 것으로 보인다.

七一 申君望 校理 **적의 내 마**춤 修撰**으로**
上下番 ᄀᆞ**초와** 勤政門 **밧기러니**
고운 님 玉ᄀᆞᆺ**튼 양**ᄌᆡ **눈에 암암**ᄒᆞ**여라.**

★申君望**: 신응시를 말함. 자가 군망. 호는 백초. 영월 사람으로 명종 때 등과하여 증성관을 거쳐 부제학을 지냈다.**
★校理**: 홍문관이나 교서관, 승문원 등의 종오품 관직명.**
★修撰**: 홍문관의 정육품 관직명.**
★上下番**: 상번과 하번. 번은 일반 관청의 숙직을 말한다.**
★勤政門**: 근정전의 남쪽문.**
★양ᄌᆡ**: 양자가. 자태가.**
★암암: 어른거리는 모양.

신궁망이 교리일 적에 내 마침 수찬으로
상하번 숙직을 갖추어 근정문 밖에 있었는데,
(이제 임금님 곁을 떠나 있으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니)
고운 임의 옥 같은 자태가 눈에 어른거리는 구나.

☞ 임금님의 곁을 떠나 멀리 와 있으니 자기가 수찬으로 있을 때(선조 2년, 34세)의 일이 생각나고 임금님의 자태가 눈에 선하다는 뜻으로, 역시 연군의 정을 노래한 것이다.

七二 南極老人星**이** 息影亭**에 비최여셔**
滄海桑田**이** ᄉᆞᆯᄒᆞ**장 뒤눕도록**
가지록 새빗츨 내여 그믈 뉘를 모론다.

★南極老人星**: 천체의 남극 부분에 있는 별. 예부터 사람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여겨져 왔다.**
★息影亭**: 경상북도 창평읍에 있는 정자로서 정철이 한때 이곳에 유배되어 귀양살이를 하던 곳이라고 한다.**
★滄海桑田**: 넓은 바다가 뽕나무밭이 된다는 말로, 세상의 변천을 뜻한다.**
★뒤눕ᄃᆞ록: 온통 뒤덮다의 옛말.

★가디록: 가지런히
★그믈 뉘: 저물 때. 어두울 때. '그믈'의 원형은 '그믈다'로, 달 등이 지거나 끝나는 것을 말함.

남극의 노인성이 식영정에 비추어서
상해가 상전으로 온통 뒤덮이도록,
가지런히 새빛을 내어 어두운 세상을 아무도 모르는구나.

☞ 식영정은 송강이 성산에 머물때 즐겨 찾던 정자로, 성산에서의 신선같은 생활에서 느끼는 재미가 무궁무진함을 노래한 것이다.

七三 臺 우희 셧는 느틔멋 히나 즈랏는고
씨 지여 난 휘추리 저 곳치 늙도록애
그제야 또 한 盞 부어 다시 獻壽하리라.

★씨지여: 씨가 떨어져
★휘초리: 죽죽 뻗은 가늘고 긴 가지
★늙도록에: 늙도록 되게
★獻壽: 회갑잔치 등에서 장수를 비는 뜻으로 술잔을 올리는 것

대 위에 심은 느티나무 몇 해나 자랐는고,
씨가 떨어져 자라난 휘추리가 저같이 늙도록 되게,
그제야 또 한 잔 잡아 다시 헌수하리라.

☞ 임금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노래이다. 임금을 느티나무에 비겨서 노목이 된 것을 경탄하면서 더욱 수를 누리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

七四 靑天 구름 밧긔 노피 쓴 鶴이러니
人間이 죠ᄃᆞ냐 므스므라 ᄂᆞ려온다
쟝짓치 다 ᄯᅥ러지도록 ᄂᆞ라갈 줄 모로ᄂᆞᆫ다

★므스므라: 무슨 까닭에
★쟝지치: 긴 깃이

저 푸른 하늘 구름 밖에 높이 뜬 학이더니,
인간이 좋더냐 무슨 까닭으로 내려왔는가.
긴 깃이 다 떨어지도록 날아갈 줄 모르는가.

☞ 명리를 버리고 산촌에 묻혀 있는 사람을 보고 읊은 노래. 이 시조는 송강 자신이, 지난날 대궐 안에서 임금님을 모시던 신선 같은 인물이었으나 이제는 시골에 묻혀 사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자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七五 거문고 大絃을 치니 ᄆᆞ음이 다 눅ᄃᆞ니
子絃에 羽調 올라 漠漠調 쇠온 말이
셟기ᄂᆞᆫ 젼혀 아니되 離別 엇지 ᄒᆞ리오

★大絃: 거문고 현의 명칭
★子絃: 거문고 현의 한 명칭. 무현, 대현, 중현, 자현으로 구분하여 부른다.

★羽調: 오음의 하나인 우성의 조. 청장한 기분을 자아낸다.
★邈邈調: 음조가 굽하고 강하다.
★쇠온말이: 세워 보니

거문고의 대현을 치니 마음이 다 누그러지더니,
자현의 우조로 올라 막막조를 세워 보니,
전혀 섧지는 아니하지만 이별은 어떻게 하려는가.

☞ 거문고의 각 현에서 나는 소리의 차이를 표현한 노래이다. 이 작품으로 미루어 송강이 거문고에 조예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七六 長짓**치 다 지게야** 놀애**를 고쳐 드러** **★지게야: 떨어지게 되어서야**
青天 **구름 속애 소솜** 써**올은 말이** **★싀훤코: 시원하고**
싀훤코 훤츨ᄒᆞᆫ 世界**를 다시 보고 말와라** **★훤츨ᄒᆞᆫ: 넓고 넓어서 거칠것이 없는.**

긴 깃이 다 떨어지게 되어서야 날개를 다시 들어,
청천 구름 속에 솟아 떠올라서,
시원하고 훤칠한 세계를 다시 보고야 말리라.

☞ 이 노래는 높이 뜬 학의 입장을 빌려 자신의 욕망을 표현한 것으로 불우한 현실을 박차고 나가 다시 출세를 하고 싶다는 뜻이다.

七七 新院 院主 **되여 녈 손님을 지내옵ᄂᆡ** **★新院: 고양군에 있는 역원. 오늘**
가거니 오거니 人事**도 하도할샤** **국립 호텔 격이다.**
안가셔 보노라ᄒᆞ니 슈고로와 ᄒᆞ노라 **★院主: 원의 우두머리**

신원의 원주가 되어 보노라니 많은 손님들이 지나가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인사도 많기도 많구나.
앉아서 보고 있으니 수고롭게 생각되는구나.

☞ 고양군에 있던 신원의 원주로 지낼 때 보고 느낀 것을 읊은 세 편의 연작 시조 가운데 첫수이다. 오고가는 관원들의 편의를 봐주고 친절히 대해 주어야 하는 자기 자신의 임무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관리들과 인사치레 하기가 수고롭다는 심정을 읊은 것이다.

七八 新院 院主 **되여 되롱삿갓 메오 이고**
細雨斜風**에** 一竿竹 **빗기드러**
紅蓼花 白蘋洲渚**에 오명가명 ᄒᆞ노라**

★되롱삿갓: 도롱이와 삿갓. 도롱이는 풀로 만든 비옷이다.
★細雨斜風: 가는 비와 비스듬히 치는 바람.
★一竿竹: 낚싯대 하나

★紅蓼花: 단풍이 들어 빨갛게 된 여뀌꽃
★白蘋洲渚: 흰 마름이 우거진 물가.

신원의 원주가 되어 도롱이 입고 삿갓을 쓰고,
비껴 지나가는 바람을 따라 내리는 가랑비 속에 낚싯대 하나를 비스듬히 들고,
붉은 여뀌꽃과 흰 마름이 우거진 물가를 왔다갔다 하노라.

☞ 신원의 원주로 있을 때 낚싯대를 들고 물가에서 한가히 지내던 풍류생활을 읊은 것이다. 원주라는 관직에 있다기보다는 은사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송강의 마음을 알 수 있다.

七九 新院 院主 되여 柴扉를 고쳐 닷고
流水靑山을 벗사마 더졋노라
아히야 碧蹄에 손이라커든 날 나가다 ᄒᆞ고려

★ 柴扉: 사립문
★流水靑山: 흐르는 물과 푸른 산
★더졋노라: 던졌노라. 자기 몸을 그 속에 맡겼다는 뜻.
★아히야: 이야기의 흐름을 변화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감탄사. 아이야
★碧蹄: 고영군 읍내에 있는 역원.

신원의 원주가 되어 사립문을 다시 닫고,
흐르는 물과 푸른 산을 벗삼아 나를 그 속에 맡겨 버렸노라.
아이야, 벽제에서 온 손님이라고 하거든 나는 나갔다고 하여라.

☞ 세상의 공명을 다 버리고 유수청산에 맡겨 생활하면서 비위에 거슬리는 도도한 관원들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자연을 벗 삼고자 하는 심정과 아울러 시류를 배척하는 마음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신원 원주로 있을 당시 송강은 관원으로서의 책임감이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시류를 피해 은둔생활을 하는 은사와 같은 기분으로 지냈다는 것을 이 세 편의 연작 시조로 알 수 있다.

八十 長沙王 賈太傅 헤건대 우읍괴야
ᄂᆞᆷ 대되 근심을 제 혼자 맛다이셔
긴 한숨 눈물도 過커든 에에ᄒᆞᆯ 줄 엇제오

★賈太傅: 隨나라 文帝 때의 賈誼. 장사왕의 태부에 이어 梁懷王의 태부를 지냈는데, 양회왕이 죽자 오래 울다가 33세에 죽었다고 한다.
★헤건대: 생각해 보니.
★우읍괴야: 우습구나.
★대되: 모든. 모두.
★過커든: 그러하거늘.

장사왕 가태부를 생각해 보니 우습구나.
남의 모든 근심을 저 혼자 맡아 있어,
긴 한숨 눈물도 그렇거늘(지나치거늘) 하물며 통곡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 수나라 문제 때의 賈誼(가의)에 얽힌 고사를 두고 읊은 노래이다. 나라의 일과 남의 일로 근심이 많은 송강 자신을 가태부에 비겨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八一 **내 양ᄌᆞ 놈만 못ᄒᆞᆫ 줄 나도 잠간 알건마ᄂᆞᆫ**
臙脂**도 ᄇᆞ려 잇고** 粉**ᄶᅥᆨ도 아니 미ᄂᆞ니**
이러코 괴실가 ᄠᅳᆺ은 젼혀 아니 먹노라

★粉**ᄶᅥᆨ: 분을 발라서 생긴 때. 혹은 분과 눈썹먹.**

내 모습이 남만 못한 줄은 나도 조금은 알건마는,
연지도 버려 두고 분때도 밀지 않네.
이렇게 하고 임의 사랑을 받을 마음은 전혀 먹지 않노라

☞ 남만 못한 얼굴에 화장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임의 사랑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으로, 버림을 받고 자포자기한 심경을 읊은 노래이다.

八二 **나모도** 病**이 드니** 亭子**라도 쉬 리 업다**
豪華**히 셔신 제ᄂᆞᆫ 오 리 가 리 다 쉬더니**
닙 지고 柯枝 **져ᄌᆞᆫ** 後**니 새도 아니 안ᄂᆞᆫ다**

★오 리 가 리: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나무도 병이들어 시들어지니 정자에도 쉴 사람이 없다.
호화롭게 서 있을 때에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쉬더니,
잎 지고 가지 꺾인 후에는 새도 와서 앉지를 않는다.

☞ 시들어진 정자 나무 아래에서 쉬어 가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므로, 성쇠에 따라 인정이 달라지는 것을 한탄하여 읊은 시조이다. 즉, 권세가 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도 많더니 형편이 쇠잔하니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야박한 세상 인심을 정자나무에 비겨 노래한 것으로, 유배생활을 하거나 낙향하여 있을 때의 외로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는 제주도 민요 가운데 같은 내용을 가진 것이 있어 송강의 작품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八三 **어화 버힐시고** 落落長松 **버힐시고**
져근덧 두던들 棟梁材 **되리러니**
어즈버 明堂**이 기울거든 무서스로 바치려뇨**

★어화: 아! 어히! 감탄사.
★버힐시고: 베었구나.
★어즈버: 아아, 슬프다.

어허 베어졌구나, 낙락장송이 베어졌구나
잠깐만 놔 두었다면 동량재가 될 것인데,
아, 슬프도다! 나라가 기울어지면 무엇으로 받치려는가.

☞ 나라의 중요한 인재가 될 만한 인물을 좌절시킴을 보고 동량재가 될 만한 장송을 베는 것에 비유한 시조이다.

八四 中書堂 白玉杯를 十年 **만에 고쳐 보니**
ᄆᆞᆰ고 흰 빗츤 네온 듯ᄒᆞ다마ᄂᆞᆫ
엇더타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은** 朝夕變 **ᄒᆞᆫ다**

★中書堂**:** 弘文館**의 별칭**
★白玉杯**: 흰 옥으로 만든 술잔.**
★엇더타: 어찌하여.

중서당 백옥배를 십년 만에 다시 보니,
맑고 흰 빛은 어제와 같은 듯 하건마는,
어찌하여 사람의 마음은 아침저녁으로 변하는고.

☞ 중서당 백옥배의 흰 빛은 십년 만에 다시 보아도 옛과 변함이 없는 것을 비유하여, 사람의 마음이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것을 한탄하는 노래이다.

八五 **재 너머** 成 勸農 **집의 술 닉단 말 어제 듯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ᄐᆞ고
아ᄒᆡ야 네 勸農 **계시냐** 鄭 座首 **왓다 ᄉᆞ뢰라**

★成 勸農**:** 勸農**은 지방의** 洞**이나** 面**에 속해 있으면서 농사일을 권장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成渾**을 가리킨다.**
★언치: 안장 밑에 까는 털헝겊.
★지즐ᄐᆞ고: 눌러서 타고. 짤고 타고.
★鄭 座守**:** 座守**는** 鄕村**의 우두머리인데, 정 좌수는 송강 자신을 말한다.**

고개 너머 성 권농 집에 술이 다 익었다는 말을 어제 듣고,
누운 소를 발로 박차 언치를 놓고 눌러 타고 가네.
아이야, 너희 권농 계시냐? 정 좌수가 왔다고 하여라.

☞ 술을 좋아하는 정 좌수가 성 권농 집에 술을 먹으러 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중장에서 '발로 박차', '지즐ᄐᆞ고'라는 낱말들을 써서, 술을 좋아하는 송강이 친구인 성 권농 집에 술을 마시러 가는 즐거운 심정을 잘 표현하였다.

八六　**어화** 棟梁村를 **져리ᄒᆞ여 어이**홀꼬
헐쓰더 기운 집의 議論**도 하도할샤**
믓 지위 고ᄌᆞ 자 만들고 헴쓰다가 말년ᄂᆞᆫ다

★헐쓰더: 헐고 뜯어.
★하도할샤: 많구나. 원형은 '하다'.
★믓 지위: 여러 木手
★고ᄌᆞ 자: 먹통과 자.
★헴쓰다가: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어허! 동량재를 저리하여 버리는구나.
헐고 뜯어 기울어진 집에 말썽도 많구나.
여러 목수들이 먹통과 자를 들고 헤매다가 말 것이다.

☞ 인재를 놓고 소인배들이 왈가왈부하여 모함하고 내치고는 종사를 어지럽게 하는 세태를 풍자한 노래이다. 앞의 '어와 버힐시고…'와 같은 시상임을 알 수 있는데, 원사한 임사수를 애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송강 자신의 처지를 비유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八七　風波**에 일니**ᄃᆞᆫ **ᄇᆡ어드러로 가닷말고**
구름이 머흘거든 처엄에 날줄 엇지
허술ᄒᆞᆫ ᄇᆡ가진 分ᄂᆡᄂᆞᆫ **모다 조심ᄒᆞ시소**

★일니ᄃᆞᆫ: 요동하던. 흔들리던.
★머흘거든: 험하거든.

풍파에 흔들리던 배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구름이 험하다면 처음부터 어찌 나아갔을까?
허술한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조심하시오.

☞ 허술한 배를 가지고 분들은 풍파에 함부로 배를 내어 놓지 말라는 말이므로 당시에 심한 당쟁에 휩쓸려 자칫하면 일신을 보전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의미가 들어 있는 시조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경구이기 이전에 송강 자신의 처지를 두고 읊은 것일 수도 있다.

八八　**져긔 셧ᄂᆞᆫ 져 소나모 셤도셜샤**
길ᄀᆞ에 가져너마 드리혀져 굴헝에 셔고라쟈
ᄉᆞᆺ 듸고 도ᄎᆡ 멘 分ᄂᆡᄂᆞᆫ **다 지그려 ᄒᆞᆫ다**

★드리혀: 안으로 들이어서.
★굴형: 땅이 움플하게 팬 곳, 구렁.
★셔고라쟈: 서게 하고싶다. '~쟈'는 '~자ᄉᆞ라'의 줄임 형태로 '~자꾸나'의 뜻이다.
★ᄉᆞᆺ 듸고: 새끼를 들고. 새끼를 두르고.
★도치: 도끼.
★디그려: 찍으려고

저기 서 있는 저 소나무
길가에 설 줄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잠깐 동안 안으로 들여놓아 구렁에 서게 하고싶구나.
새끼 들고 도끼를 멘 사람들이 다 찍어 버리려고 하는구나.

☞ 길가에 서있는 소나무를 도끼든 사람들이 다 찍어버리려고 하니 저 소나무를 안으로 들여놓아 그 피해를 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당시에 소나무처럼 우뚝 솟은 인재들을 모함하고 해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고 그 피해를 걱정하는 노래이다.